

< 성령으로 예비하신 것들 >

고린도전서 2:9,10 / 새찬송가 487 (통일 535)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1. 사랑하면 예비하게 됩니다

참된 사랑이란 예비해서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요구를 듣고 그 필요를 준다면 그건 보통 수준의 사랑이요 요구할 때도 주지 않는다면 무관심과 미움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먼저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자비로 느끼시며 전능하신 의지로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지:知) 느끼고(정:情)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것(의:意)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낙원을 예비하셨습니다(창2:8).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인류의 화목제물로 예비하셨습니다(요일4:10).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힌 가죽옷이 이를 상징합니다(창3:21).

2.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내 존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존재보다 앞서 나를 위해 예비하십니다(엡1:3-7). 내 존재가 지을 죄에 앞서 용서와 의롭다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비하시고 나의 병든 몸에 대한 치료와 문제해결과 죽음 이후에 갈 천국도 다 예비하셨습니다(요 14:1-3).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내 존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내 감각이나 생각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고전2:9).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3.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닫고 이를 믿기 위해 성령충만을 받아야 합니다(고전

2:10).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 들으신 대로 오직 진리와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요16:13).

그리하여 성령은 장래 일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일을 영적으로 알게 해 주십니다(고전2:11-13). 즉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귀에 들리는 것’처럼, 지금 나의 생각과 논리와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논리와 판단을 초월한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히11:7,8).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얻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기도응답이요 천국에서의 큰 상이 그것입니다(히11:6).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믿기 위해 성령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충만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적용&실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소망이 없어서, 혹은 내가 판단하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